

보도시점 2025. 6.27.(금) 12:00 배포 2025. 6.27.(금) 08:30

## 국가통계연구원, 「SRI 통계플러스」 2025년 여름호 발간

국가통계연구원(원장 김 진)은 경제·사회·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·데이터를 분석한 「SRI 통계플러스」 2025년 여름호를 발간하였다.

이번 호에는 코호트별 비교에 관한 이슈분석 「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」와 「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: 혼인, 출산, 주거」 등을 수록하였다.

\* 이슈분석 외에 통계프리즘에 「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! 대한민국, 서비스 산업으로」, 「온실가스 배출량 감축, 어디까지 왔나?」, SRI리서치노트에 「국가통계 관점에서 본 AI 활용 현황」 수록

「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」(국가통계연구원 안상건 사무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규 부연구위원)에서는 인구총조사,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 교육 및 취업현황을 코호트별로 살펴보았으며, 「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: 혼인, 출산, 주거」(국가통계연구원 현대환 주무관, 고려대 김근태 교수)에서는 인구총조사, 인구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의 혼인·출산·주거에 대해 코호트별로 비교·분석하였다.

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,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.

※ 붙임: 「SRI 통계플러스」 2025년 여름호 이슈분석 소개(요약)

담당 부서	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	책임자	실 장	최바울 (042-366-7301)
		담당자	사무관	배준형 (042-366-73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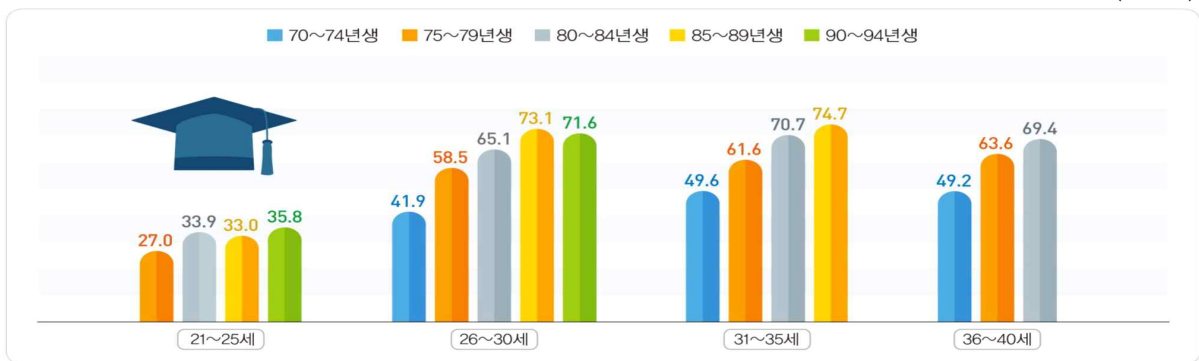
※ 국가통계연구원 보고서 「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: 교육·취업」(2025년 3월)의 주요연구 결과를 발췌·활용  
 ※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통계연구원 또는 통계청의 공식견해가 아님

안상건,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  
 신영규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

- 코호트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을 살펴보면,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코호트에서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최근에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이 높음

< 코호트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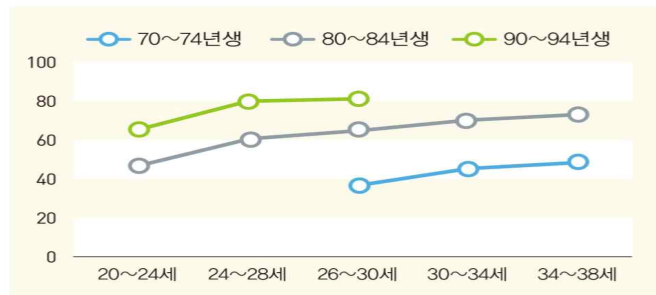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< 코호트별 교육 기회 충족 비율 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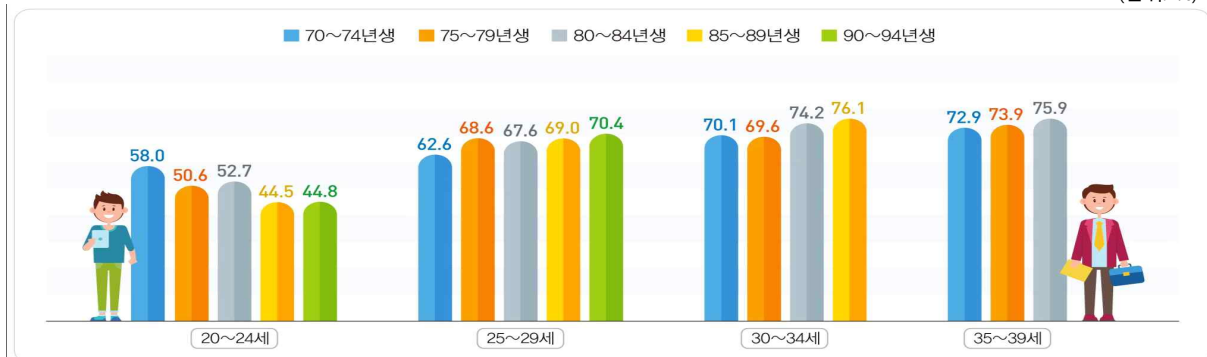
- 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
- 또한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



-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률은 상승하였는데, 코호트에 따라 20~24세 고용률은 편차가 컸지만, 30대 이후 고용률은 거의 모든 코호트에서 70%대로 비슷함

< 코호트별 고용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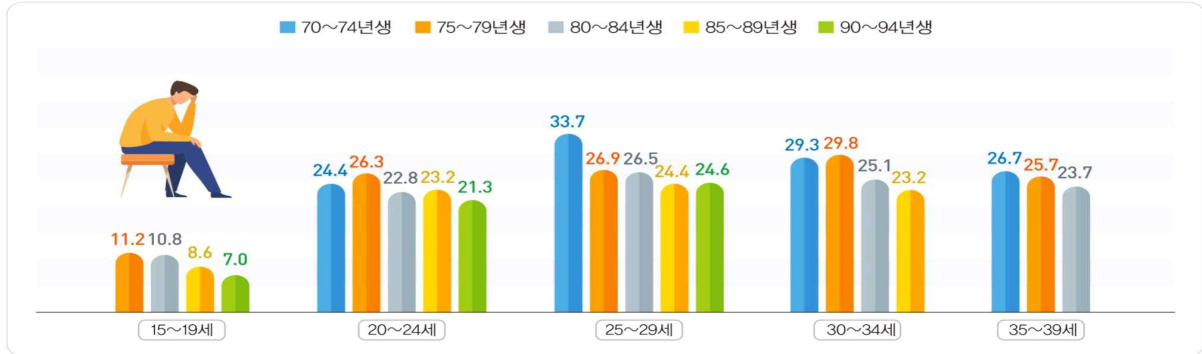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,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그 비율이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

< 코호트별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 >

(단위: %)



-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, 최근에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그 기간이 증가

< 코호트별 첫 취업 전 소요기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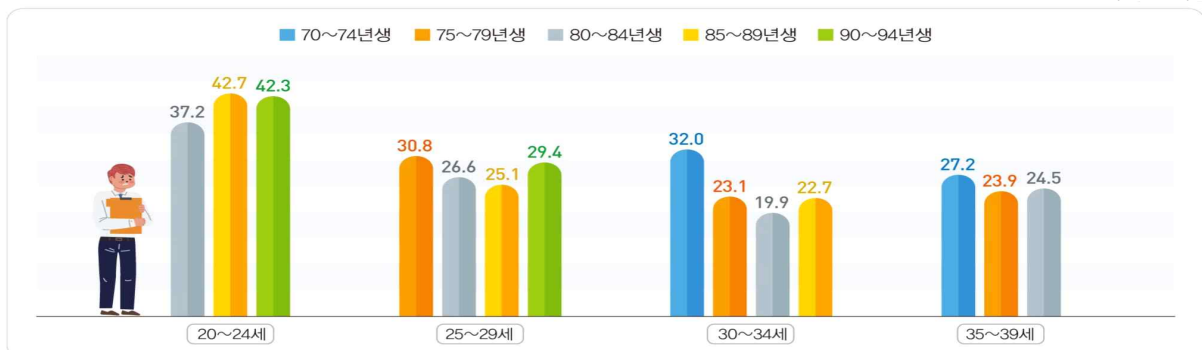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월)



- 거의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
  - 그러나 코호트에 상관없이 20~24세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40% 내외이고, 35~39세에도 약 1/4 정도가 비정규직이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

< 코호트별 비정규직 비율 >

(단위: %)



## 이슈분석

#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: 혼인, 출산, 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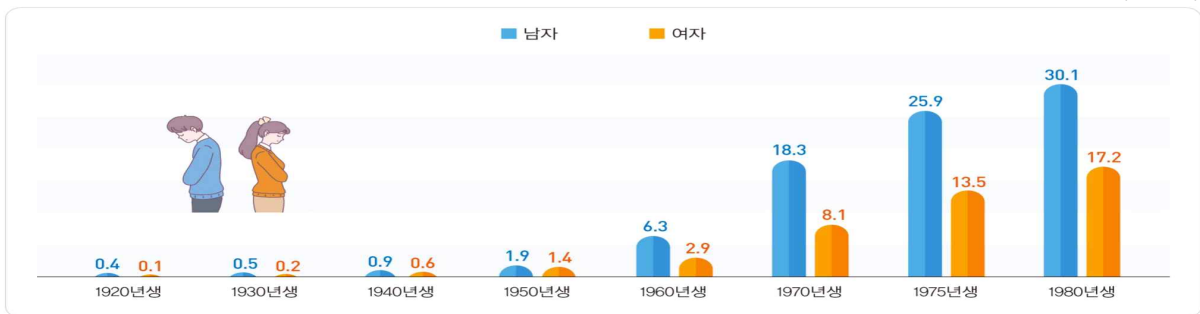
※ 국가통계연구원 보고서 「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: 혼인·출산·주거」(2025년 3월)의 주요연구 결과를 발췌·활용  
 ※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통계연구원 또는 통계청의 공식견해가 아님

현대환, 국가통계연구원 주무관  
 김근태, 고려대학교 교수

- 40세까지 초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 또는 비혼인 상태의 비율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빠르게 높아지며,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남

< 코호트별 40세 기준 미혼(미혼) 비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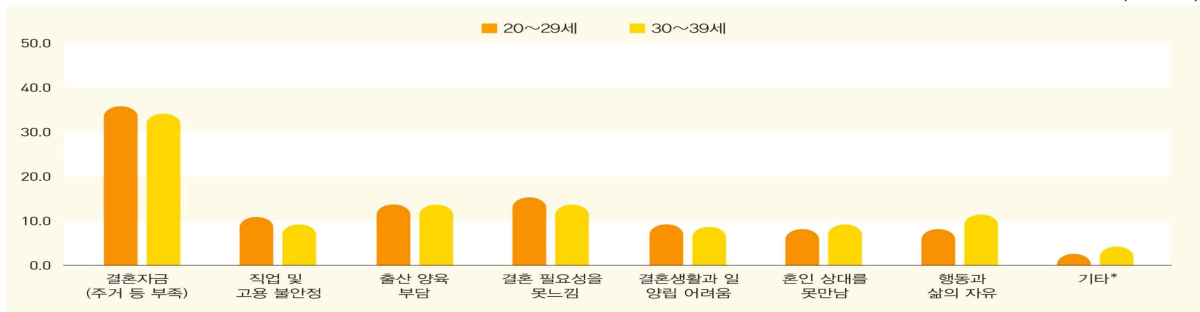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주거 마련을 포함한 결혼자금 문제가 20대는 35.4%, 30대는 33.9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

<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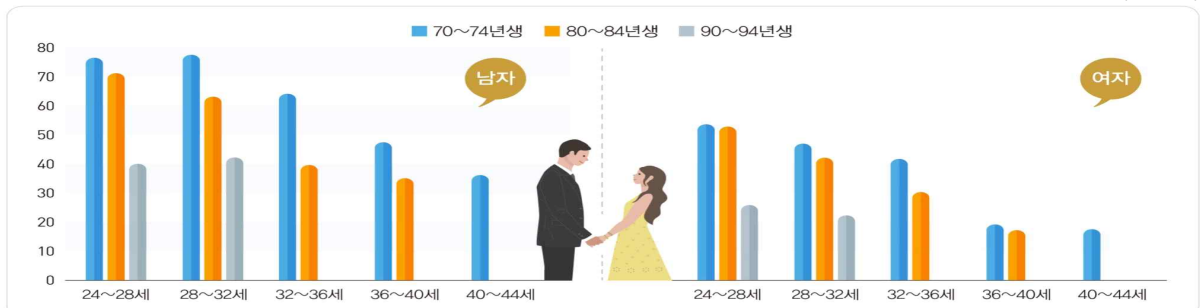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24~28세 남성의 경우, 1970~1974년생의 결혼 의향이 1990~1994년생보다 약 2배 높으며, 이러한 경향은 28~32세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
- 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결혼 의향이 남성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20%p 정도 낮음

<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>

(단위: %)



- 혼인시 여자의 학력이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살펴보면,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여자의 학력이 남자보다 높은 비율이 증가

< 혼인 시 여자의 학력이 남자보다 높은 비율 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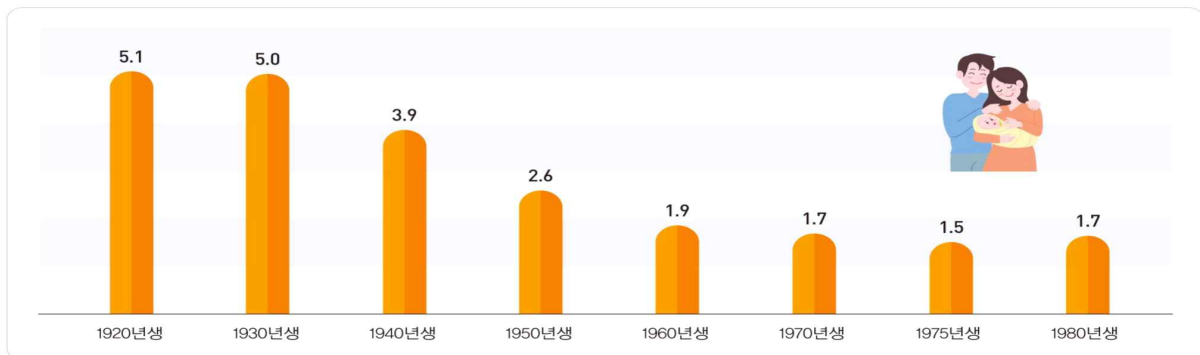
	1970~1974년생	1975~1979년생	1980~1984년생	1985~1989년생	1990~1994년생
20~24세	7.2	11.1	13.8	15.9	17.4
25~29세	8.3	10.4	13.6	15.8	16.9
30~34세	11.2	14.5	17.0	17.8	16.8
35~39세	15.5	18.6	19.2	18.2	—
40~44세	17.3	18.7	18.9	—	—
45~49세	16.4	17.1	—	—	—

주: 혼인 시 여자 코호트 기준

- 40세 기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, 1960년생부터는 대체 수준 출산율 수준인 2.1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

< 코호트별 40세 기준 출산율 >

(단위: 명)



- 40세 기준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1960년생(3.0%)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80년생은 9.6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

< 코호트별 40세 기준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>

(단위: %)

